

##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9 : 1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앉은 사람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sup>1</sup>

**And he said unto them, Verily I say unto you, That there be some of them that stand here, which shall not taste of death, till they have seen the kingdom of God come with power.**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일평생 사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보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 보여졌고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의 identification 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의 현재의 삶의 행복과는 관계없이 내세에 있을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은 현재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이 단순히 죄용서를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것인가 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없습니까?

---

<sup>1</sup>.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나는 이 구절을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 분의 마음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신앙 인생의 모습이 됩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새겨져 있느냐/ 흐릿하냐? 분명하냐? 하는 그것이 여러 분이 살아가는 신앙 인생의 자화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신 분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누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누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 I.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편적 오해입니다.

1. 그 첫번째 오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극복의 노력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잘되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번뇌를 봅니다.

첫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인생사의 모든 번뇌가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공생애 기간 동안 내내 죽음을 앞에 놓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고통(abhorrence)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 : 27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sup>2</sup>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Now is my soul troubled; an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but for this cause came I unto this hour.

이 구절에서 민망하다는 말은 원어에는 has been troubled 라고 되어 있어 쪽 현재까지 이어지는 고통 중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더욱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처럼 쏟으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자기 극복을 위해 기도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 :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신성을 감소와 변형과 분리 없이 가지신 분이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성이 가져야 하는 모든 고통을 다 지니셨으나,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고통없이 승리의 월계관을 쓰시지 않았습니니다.

히브리서 12 :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

<sup>2</sup>. τετάρακται : HAS BEEN TROUBLED (현재 완료)

2. 두번째 오해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유혹을 다 통과하셨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오래 전에 나온 책에 “예수님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섹스를 하는 장면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묘사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원죄와 자범죄가 그안에 없으시기 때문에, 죄적 욕망이 생산해내는 죄적 욕구가 없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계셨지만, 죄에 대한 욕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죄적 욕망이 있었다면, 죄로 인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3. 세번째 오해는 예수님께는 유혹이 없었다는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은 시험은 죄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없으신 예수님에게 무슨 유혹이 있었겠느냐 하는 오해입니다. 유혹은 죄로 인해 올 때가 많지만, 죄없이 오는 시험도 많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주기도문 강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에서 자세히 공부했으니 그 곳을 참조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한 구절만 찾고 지나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 :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은 일평생 시험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시험의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유토피아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가 생성해내는 죄적 욕구가 내면에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잘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모두 다 체휼하시며 극복하며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완전히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누리신 분입니다.

- II.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이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나가야 할 고통을 다 지나가야 하고 약함을 다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해 보십시오.

로마서 14 :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 먼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죄가 없다 인정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원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마음 속에 언제나 의가 넘쳐 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확신이 항상 넘쳐 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 :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한일서 3 :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구절은 ‘의롭다 여겨지면’

‘의롭다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게 됩니다.

이 구절이 의가 왜 중요한 가를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의가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 다음에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강은 의의 결과로 온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죄가 있으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의롭다 여겨진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본래적 의로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신과의 평화, 환경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 :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계셨지만, 이 세상의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생명의 존립의 문제가 달린 극한 상황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당당히 빌라도 앞에서 주권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 :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살았지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이 세상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  
죽일 구실을 찾는 적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주권의 본질을 선언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지신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인생의 모든 풍랑과 홍수위에 있어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 :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행복의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리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 2. 다음에 희락은 무엇입니까?

희락은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의 결과로 온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 희락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희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으로 자신과 환경을 극복하고 난 후 오는 믿음 안에서의 희락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떤 대상과 큰 싸움 중에 있다고 해 보십시오.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쁨은 싸움이 끝나고 승리했을 때에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싸워 승리하고 난 후에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쁨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쁨은 환경이 변해서, 파도가 가라 앉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파도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풍랑은 어제보다 더 비바람치며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기쁨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 :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환경은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시시각각 십자가에 달릴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는 바로 12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이 기쁨은 의와 평강의 결과입니다. 의와 평강이 넘치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그것을 이기고자 자신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으로 자신과 환경과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믿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의와 평강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 :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요한복음 16 :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한 의의 충만,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평강의 충만, 의와  
평강으로 싸움에 이기고 난 후 누리는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멀리 피안에 있는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파도 위에 떠 있으면서, 파도와 싸우면서 누리는, 그러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싸우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폭풍우 위를 떠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